

예수: 편견과 상투성의 파괴자(Jesus: The breaker of prejudices and stereotypes)

주제: 예수는 편견과 상투성을 깬 온전한 삶(참사람- human wholeness)을 살아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what God is, 신성)을 보게 하며, 다른 사람들도 참사람(새로운 인간성)으로 살게하는 구원의 힘이된다.

문제점

- 모든 형태의 편견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질병으로 참사람(human wholeness)의 길을 가로 막는 왜곡된 힘이다.
- 기독교 신앙은 낡은 편견을 축복하고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
- 인간은 편견(타인을 거부하거나 증오)을 통해서 온전해 질 수 없다.

논점

- 인간성의 본질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어 하고 적을 패배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때 편견을 사용한다. (생존 수단)
- 편견은 투사행위를 통해 작용한다.
- 편견의 종류: 인종에 의한 편견(흑인)과 성차별(여성)
- 예수는 자신을 전적으로 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편견을 넘어선 개방적인 인간의 온전성(human wholeness)을 보인 분으로,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존재 (what God is, 신성)을 보게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이러한 온전한 인간성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부족의 한계, 편견, 성차별, 공포 등에서 자유롭게 되어 자신과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구원이다. What life was meant to be, human wholeness, new creation
- 이런 삶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약속(263)에 동참하도록 용기를 준다.(전도)

문제점: 편견은 투사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스펡은 보는데 한 개인의 투사행위가 어떻게 사회적, 집단적인 편견으로 자리잡는가하는 설명이 없다.

남부 지역 백인들의 마음 속의 불안의 원천인 큰 공포가 본질상 성적인 것이라는 것, 남부 백인 남성들의 성적인 무력감을 흑인 여성들을 범함으로써 상쇄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스펡의 편견?

생각해 보기: 한국 사람, 기독교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일까?